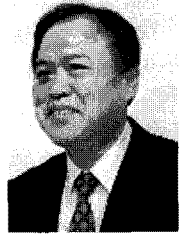


주말농장



김시우 통일회원
(전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말이 주말농장(週末農場)이지 서울 부गत집 베란다에서 난 화분 키우는 면적에도 못 미치는 4평짜리이니 농장이라 부르기에는 과분하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 4평짜리 농장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다양한 효용가치를 지닌다. 나는 농사일에 관한 한, 일찍이 전국 독농가상(篤農家賞)을 획득하신 아버님으로부터 생물학적 유전성과 환경적인 삶의 유전성까지 받은 모양이다.

농사일이 취미라기보다는 생활의 일부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비록 4평짜리 농장이라지만 100평 혹은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나는 농촌에서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고 4-H구락부 운동까지 열성이었으니 농촌문제와 농사에 관한 관심은 항상 내 마음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다. 대학에선 인문계학과를 나오고 퇴임까지 농사와 연이 없는 직종에 있으면서도 나는 새벽부터 “밝아오는 농어촌”이란 라디오 채널에 맞추어 하루를 여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어디에서 생활하던 최소한 채소 몇 포기라도 가꿀 수 있어야 생활이 정착되는 것이 이미 생활의 리듬이 되었다.

나는 2007년도에 서울 강동구 암사동으로 이사한 후, 직장도 퇴임한터라 매우 무료한 시간이 쌓임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고향 선배인 김종오(사단법인 전국농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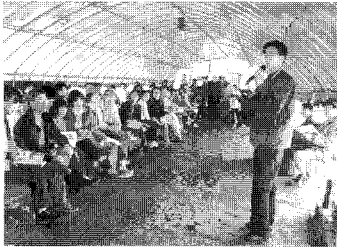
술자협회 부회장)님이 협회의 주말농장을 권유해 왔다. 나로서는 그야 말로 불감청(不敢請/감히 청하지 못했지만)이나 고소원(固所願/진실로 원하던 것)이었다.

사실, 나 역시 1980년대 초에 농업기술진흥관 건립운동에 기꺼이 동참하여 통일회원이라는 이름의 농업기술자협회 평생회원이 되었으니 우리 협회가 직영하고 있는 초록텃밭이 바로 그 4평짜리 주말농장이라는 것이다.

마침,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그 초록텃밭은 우리 집에서 도보로 50분 거리, 대중교통으로도 15분 전후였으니 조깅코스로도 안성맞춤이었다. 그리하여 이름이 주말농장이니 주말에 심심풀이로 1회만 다니기로 했으나 스트레스나 무료함을 느낄 때면 정일을 뛰어넘어 수시로 농장을 다녔다. 그 덕분에 금년에는 나의 밥상에는 늘 내가 기른 채소가 한두 가지씩 올랐다. 사실 나는 학교시절부터 예체능 시간은 늘 기피할 정도로 싫어하였으니 취미나 특기가 있을 리 없다.

나는 전형적인 촌놈으로 생활이 매우 건조하고 내 스스로 생각해 봐도 한마디로 재미없는 사람이다. 기박도 골프도 고스톱도 못하니 이방면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없고 아내에게는 재미없는 남편이고 자식들에게도 분위기 잘 살리는 멋진 아버지가 못 되었다. 취미라 하면 그저 뜻 맞는 친구들과 소주나

주말농장



2008년 초록텃밭개장식 장면



초록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모습



초록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모습

마시며 환담하거나 아니면 책장이나 뒤적이
고 글이나 굵적거리는 정도이다. 그렇다고
낮잠을 즐기거나 멍하게 앉아서 쉬는 성격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번
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노는 시간은 거의
없는 일상이다. 그러니 주말농장은 내 생활
에 아주 적격일 수밖에...

비록 4평이란 좁디좁은 면적의 농사라지
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삼위일체(三位一體)
가 되어 짓는 게 농사이고 보면, 좁은 땅이라
한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 줘가며
부지런히 가꿔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니 나의 농장경영 또한 물샐 틈 없는
집약 노동에다 집약 재배였다.

그 4평짜리 내 농장엔, 봄에 상추 사이사
이에 들깨를 심어 상추밭은 환갑이 되기 무
섭게 바로 들깨 밭으로 변하고, 고추밭골 사
이에 또 대파를 심어 고추의 세가 낮아지면
바로 파밭으로 이어지고, 또 배추 무밭으로
연계되어 농장은 항상 푸른 모습을 잃지 않
았다. 그러나 가을배추, 무우 밭골에 시금치
를 심고 마늘을 심고 쪽파를 심으려던 내 계
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농장관리인 왈(曰),
늦가을부터 이른 봄 사이에 전면적인 밭갈이
가 시작된다기에 아쉽지만 겨울은 휴경지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

금년 봄부터 늦가을까지 농장을 드나들며
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무료함을 달래

고 조깅코스로서의 역할도 이 4평짜리 농장
이 다 해냈으니 나는 이 주말농장의 농사 외
적 효과와 가치를 어찌 수확량으로 헤아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랴, 다만 풍년가을을
걱정하는 채소재배 농가에게 적지 않는 미안
함과 죄스러움이 스며드는 것은, 이미 도시
민이 된지 오래이건만, 농촌을 걱정하는 농
심(農心)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 밑바닥에는
움직일 수 없는 따뜻한 고향으로 살아있기
때문이라.

폐일언하고, 서울이라는 도심에서 온갖 현
대문명이라는 이기와 편리를 만끽하고 있으
면서도, 이에 반비례하여 거치른 세파 속
에서 온갖 공해에 찌들대로 찌든 나에게 이런
농사의 기회를 준 우리 협회에 더없는 사랑
과 신뢰의 정을 보내 드린다.

아울러 4평짜리 7백여 구좌나 되는 이 초
록텃밭의 7백여 농장주(農場主)들이 각각 생
업을 달리하면서도 주말마다 찾아와 알뜰한
농심을 일궈가고 있는 동료 농사꾼(?)임을
스스로 대견스러워 하면서, 기축년(己丑年)
새해에도 이른 봄부터 싱그러운 초록텃밭을
생명력 넘치는 사랑의 보금자리로 가꿔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만 하다.

아..., 그래서 예로부터 선인들은 농사를
일컬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
라 했었던가!! ☺